

## 圖書館學科의 특성과 발전 방향

嚴 永 愛

(曉星女大 圖書館學科)

### 1. 序 言

圖書館學 敎育은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는 것으로 圖書館學科(文獻情報學科 포함: 이하 圖書館學科라 한다)는 그러한 敎育을 받아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專門職 司書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을 專門職의 업무로 인식하고 그 敎育을 大學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圖書館學 敎育의 모체적인 미국의 圖書館學 敎育課程이 공식적으로 大學에 設置된 1887년이다. 이 해에 Melvil Dewey는 콜롬비아대학에 School of Library Economy를 설립하고 實務 敎育을 주 목적으로 하는 圖書館學 敎育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圖書館 司書養成의 敎育을 大學이 맡아야 할 정도로 그들에게 理論과 知識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學問分野와 동등하게 大學의 敎育課程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期間이 필요하였다.

圖書館 現象과 現場의 업무 그리고 실제적인 奉仕가 圖書館學의 理論定立을 훨씬 앞섰다는 사실과 敎育의 내용인 理論과 그 敎育의 결과가 圖書館 奉仕라는 데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實用 學問의 제한된 狀況에서 圖書館學의 발전은 쉽지 않았다. 圖書館學의 '學(science)'에 대한 논

란은 지금까지도 명쾌한 結論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圖書館學 敎育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機關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무슨 內容을 어느 정도의 理論과 實習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등과 관련해서 半世紀가 넘는 혼란기를 겪은 후인 1950년대에 미국의 圖書館學 敎育은 大學院 과정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즉, 司書敎育은 專門職 단체인 圖書館協會가 認可한 大學院이 달고, 認可받은 곳에서 圖書館學 碩士學位를 취득하면 專門職 司書로 인정받아 도서관에서 實務에 종사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국의 綜合大學에 圖書館學科가 설립된 것이 이 시기였다. 1957년에 미국 Peabody 사범대학의 지원으로 연세대학교에 圖書館學科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에 중앙대학교, 그리고 1964년에 성균관대학교에 學科가 설치되었다. 1974년에 國立大學으로는 최초로 지방의 경북대학교에 圖書館學科가 개설될 때까지 10여년 동안 서울에 소재한 4개 大學이 圖書館學을 專攻한 大學 出身의 司書를 배출하였다.

1950년대의 狀況을 돌이켜 보면 4년제 大學에 圖書館學科가 설치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專門職 敎育에 필수적인 人力需要에 대한 事前 研究 없이 圖書館 現

場에서 필요로 하는 知識과 技術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取捨選擇의 여지가 없이 異質的인 文化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발전된 圖書館學 敎育을 받아 들이게 된 것은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발전이 평탄치 않을 것을 豫示하였다.

專門職으로 구성된 協會가 敎育에 관여하는 것은 그 전문직의 특성과 奉仕精神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주입시키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圖書館學 敎育이 전문직의 특성이 무시된 채 大學敎育 制度의 일부로 그 行政規制에서 탈피할 수 없게 낙착이 되었다.

本 小考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도서관학 敎育의 特性과 現況 및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內容은 1989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도서관학과 敎育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결과를 參考로 하였다.

## 2. 圖書館學科의 特性

圖書館學 敎育이 圖書館의 업무와 관련된 理論과 技術을 전달하는 活動이므로 圖書館의 사회적 기능 및 그 役割을 고려하지 않고 圖書館學科의 敎育을 논의할 수는 없다.

우리의 圖書館學 敎育은 圖書館法을 근거로 한다. 1963년에 처음으로 制定되어서 그 內容의 미비로 圖書館界와 學界에 불만의 소지가 되었던 圖書館法은 1987년에 改正되었다. 개정된 도서관법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分析·保存·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査·研究·學習·敎養 등 平生敎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施設'로 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가 社會的으로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받아 들여지는가는 새삼스럽게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圖書館法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도서관학과의 敎授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學生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일반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여전히 '책'이 모여진 곳이고, 공부하러 혹은 책을 빌리러 가는 곳에 不遇한 것이다.

圖書館資料를 蒐集하고 정리·보존해서 利用시키는 한편, 다음 世代로 傳承하는 圖書館의 機

能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그 기능의 실제 遂行은 社會的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도서관이 어떤 資料를 蒐集하고 수집된 資料를 어떻게 組織하고 보존하느냐와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奉仕하느냐 등은 도서관이 蒐集할 수 있는 資料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處理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道具와 技術은 무엇인지, 利用者는 누구이며 그들이 왜 도서관을 利用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條件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政治·經濟·社會·文化·敎育·技術 등 그 어느 하나라도 圖書館 발전과 무관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圖書館이 蒐集하여 保存하는 資料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機能과 奉仕는 그 도서관이 속해 있는 社會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세대가 이룩해 놓은 文化遺産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기능에서부터 學問과 敎育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知識의 創出을 가능하게 하는 것등을 비롯해서 오락적인 기능에까지 다양한 것이다. 즉, 人間이 記錄物을 利用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可能性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서관이고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여 주는 주체가 司書들인 것이다. 이러한 司書를 배출하는 것이 圖書館學科 敎育의 目標이므로 圖書館學科는 社會적인 제반 要因들을 고려해서 圖書館의 본질적인 役割을 이해시켜야 하고 利用者 개개인의 다양한 資料利用 動機를 높이며 동시에 그들의 資料活用을 극대화하는 데에 필요한 理論과 知識·技術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 3. 現況과 問題點

### 1) 圖書館學 敎育機關

改正된 도서관법은 正司書를 2級과 1級으로 구분하였고, 1988년에 공포된 改正 圖書館法施行令은 그 資格要件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敎育 기관에는 專門大學 圖書館科와 大學의 圖書館學科와 文獻情報學科가 있다. 즉, 專門大學 圖書館科를 졸업한 사람은 準司書,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졸업하면 2級 正司書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과 더불어 圖書館學 碩士와 博士學位를 받아도 2級과 1級 正司書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碩士와 博士課程이 설치된 大學院의 圖書館學科와 文獻情報學科도 교육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指定 교육 기관에서 所定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準司書, 2級 正司書 및 1級 正司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도 도서관학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準司書を 배출하는 專門大學 圖書館科가 6개, 4년제 학부 과정의 圖書館學科가 30개, 大學院 碩士 과정이 12개 大學에 설치되어 있으며 博士 과정이 개설된 곳은 4개 大學이다. 또한 2級 正司書 자격과 아울러 司書敎師 자격을 부여하는 教育大學院의 司書敎育專攻 과정이 2개 大學에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所定의 도서관학 교육을 履修시키고 司書資格을 주는 지정 교육 기관에 속하는 일종의 特殊課程을 성균관대학교 부설 韓國司書敎育院과 계명대학교의 司書敎育院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도 정기적으로 所定의 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에 圖書館學의 교육 기관이 量的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專門大學 圖書館科를 졸업하였거나 專門大學을 졸업한 사람들이 所定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準司書가 될 수 있고, 準司書로 도서관 근무 경력을 4년 이상 쌓은 후에 또다시 所定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級 正司書가 될 수 있으므로 正司書에 요구되는 學歷은 專門大學 이상이 되는 것이다.

## 2) 現況

대부분의 圖書館學科는 圖書館學의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情報 봉사를 수행할 專門職 司書와 情報專門家의 배출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個個 學科의 特性이나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에 별 차이점이 없다.

敎授陣의 경우에도 資料組織, 參考奉仕, 圖書館經營管理, 書誌學, 情報學의 分野를 담당하는 3~6명 정도의 專任敎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평균 1:44로 나타난다. 각 교수의 週當 강의 시간은 평균 9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강의 과목의 수와 연구 활동, 대학원 강의 및 學生指導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부담을 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圖書館學科가 개설하고 있는 專攻科目을 必須와 選擇으로 구분하여 졸업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비율을 산정하면 평균 24:37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專攻必須科目은 평균 24학점이다. 이 科目들을 分野別로 入門, 技術業務, 參考奉仕 및 書誌, 圖書館經營管理, 情報시스템, 語學 그리고 기타 分野로 구분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技術業務分野이고 그 다음이 入門分野, 그리고 參考奉仕 및 書誌分野, 圖書館經營管理分野의 순서로 나타난다.

專攻選擇科目은 學科마다 평균 20과목 가량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履修해야 할 학점은 평균 37학점이다. 선택 과목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技術業務分野의 科目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參考奉仕 및 書誌分野, 圖書館經營管理分野, 語學分野, 入門分野, 情報시스템分野의 순이다. 圖書館의 技術業務와 관련된 科目들이 교과과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과의 教育目標가 現場에서 實務에 종사할 專門人들의 배출이고 또 학과의 졸업생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실제로 業務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圖書館學 敎育에는 業務의 훈련을 위한 實習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實習室은 구비하고 있으나, 基本的으로 필요한 道具資料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와 시청각 기기의 경우에 학생들이 적절한 實習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학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의 결과는 器機를 사용하는 實習이 꼭 필요한 敎科目的 경우에도 교실에서 강의론 통한 理論의 주입 혹은 문헌 자료 중심의 敎授方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신설된 圖書館學科들이 졸업생을 배출하기 이전부터도 學部出身 司書들이 취업할 도서관의 수는 절대 부족하였으며, 현재의 자연 증가되는 圖書館의 人力需要와 현저하게 늘어난 도서관학과 졸업생들의 비율은 그 比較 자체마저 懷疑를 갖게 한다. 전체 도서관학과 졸업생들 가운데 약 20%만이 圖書館界에 종사하고 있다. 圖書館界의 취업자들을 館種別로 분석해 보면 國會와 國立圖書館에 5%, 公共圖

書館에 14.6%, 學校圖書館에 8.8%, 大學圖書館에 40.6%, 그리고 專門 및 特殊圖書館에 31%가 종사함으로써 졸업생들이 大學·專門·特殊圖書館에 비교적 많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專門職 司書의 奉仕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이 圖書館學科 卒業生들에게 주는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 3) 問題點

圖書館學科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圖書館發展의 落後라든가 圖書館과 司書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國家 혹은 社會의 차원의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들이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이 學科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이다. 이것은 專門職 司書들을 흡수할 圖書館과 情報奉仕 기관의 수가 不足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學科의 수준에서는 30개 학과가 유사한 敎育으로 비슷한 資格 所持者들을 1년에 1,200명도 훨씬 넘게 배출해 내는 것도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學生들에게 새로운 媒體와 기술에 대한 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實習裝備의 부족도 커다란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극소수의 大學을 제외하고 大學敎育에 전반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지만, 理論과 實習의 균형잡힌 敎育이 필요하고 學生들이 敎育 현장을 떠나면서 곧바로 正司書의 資格을 갖게 되는 圖書館學 分野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敎科課程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學科들이 科目의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大同小異한 科目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30여년 전에 圖書館學이 도입된 이래 경제적·사회적인 變化와 더불어 상당한 技術의 發展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現實을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資料의 組織을 포함하는 圖書館 業務의 技術의인 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學生들이 選擇할 수 있는 科目의 領域과 그 數가 限定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한 것도 바람직한 現象은 아니다.

專任敎授의 부족도 圖書館學科에 국한된 문제

만은 아닐 것이지만, 이 문제는 學科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阻害要因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選擇科目 개설에 제한이 따르고 많은 學生들을 대상으로 講義를 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敎授方法을 채택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업 부담으로 研究活動이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情報學과 情報技術의 敎과목들을 어떻게 무리없이 敎과과정에 통합시킬 것인가는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상당 수에 달하는 情報學 科目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情報學이 컴퓨터를 포함한 새로운 技術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奉仕를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處理하도록 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므로 學問의인 이론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못한 도서관학 분야에서는 그것을 挑戰으로 또는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情報를 다루어 왔고 情報提供의 역할을 수행해 온 圖書館의 기능과 奉仕를 제대로 認識하고, 目的과 手段을 구분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쉽게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圖書館 現場에서 필요한 知識과 敎育內容 사이에, 또 圖書館學 敎育이 가르치는 概念과 현실적으로 社會가 인식하고 있는 概念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과 우리 社會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圖書館과 情報奉仕가 필요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에 그 奉仕의 수준이 다양할 것이라는 점, 쉽게 말해서 館種別로 圖書館이 소속된 기관이나 대상으로 하는 利用者에 따라서 요구할 奉仕의 質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圖書館學 敎育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 4. 圖書館學 敎育의 發展方向

도서관학의 장래를 전망하는 文獻에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들은 變化, 情報技術, 컴퓨터, 複寫技術, 텔레커뮤니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우리의 狀況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圖書館學 敎育이 대비하여야 할 것들이다.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의 解決과 앞으로의 變化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아울러 情報人力의 요구와 需要를 고려해서 敎育의 방향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司書職의 專門化 敎育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學問分野의 細分化나 專門化 現象은 일종의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다. 圖書館學 敎育도 一般司書(generalist librarian)를 위한 敎育과 함께 專門司書(specialist librarian)도 배출해야 할 때가 되었다. 圖書館學科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國家와 社會的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 볼 수도 있으나, 현재의 狀況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學科가 소속 大學이나 개별 학과의 特性을 살려서 학생들이 館種別로나 業務別로 또는 부전공 제도를 이용한 主題別로 專門化해서 도서관학을 專攻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즉, 學科 敎授들의 主題 배경, 研究分野, 利用 가능한 大學內의 시설 및 人的 資源을 활용해서 개개 學科가 제공할 수 있는 領域의 專門司書를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로 主題專門司書를 배출할 大學院 敎育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改正된 도서관법과 그 施行 令에 따라서 大學院 敎育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圖書館 現場이 필요로 할 情報 要求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圖書館學科의 意圖的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專門圖書館과 特殊圖書館, 大學圖書館의 專門司書 敎育은 대학원이 맡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情報學과 함께 利用者의 奉仕에 관련된 敎科科目을 증설해야 한다. 敎育內容의 優先을 技術的인 分野에서 利用과 奉仕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資料를 모아놓고 훌륭한 奉仕를 해도 利用者들이 관심 없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利用者들에게 圖書館을 인식시키고 活用하도록 필요하면 그들을 가르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情報技術과 함께 情報學 관련 敎科科目을 확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포함한 技

術은 그것을 活用하여 情報利用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道具이고 手段이며 결코 그 자체가 目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로 圖書館과 협력하여 도서관학 분야의 研究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狀況과 問題를 근거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圖書館學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圖書館 現場과 유리된 理論은 效用價値가 없으므로 도서관학과와 도서관이 협력하여 현장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함께 解決策을 모색함으로써 좀 더 나은 理論과 아이디어, 그리고 적절한 方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圖書館協會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指導力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敎育與件의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專任敎授의 부족을 해소하여 敎育과 研究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學生들이 새로운 媒體와 技術의 特性을 이해하고 필요한 때에 適用·活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實習室과 아울러 道具資料와 敎育用 裝備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현재 圖書館學 敎育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資料의 保存과 文書管理 분야의 보완과 더불어 出版 및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분야의 敎科科目을 교과과정에 포함해서 졸업생들의 就業範圍를 넓혀 주는 것도 試圖될 수 있다. 이 경우에 大學 안에서 다른 學科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강의를 의뢰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複數專攻制를 실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과 함께 유의할 것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圖書館史를 포함해서 文化의 保存과 창달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役割과 관련하여 圖書館에 대한 認識과 圖書館學의 概念을 고쳐서 基礎 科目들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